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9대 운영위원회의 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7. 04. 16.	회의 장소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자	임아리
참석자	박시일 의장, 이민서 부의장, 신민기 부의장, 수석대변인 박기병, 수석서기 임아리, 이광주 멘토, 윤지희 팀장, 문정주 위원장, 장준혁 위원장, 정현민 위원장, 이지희 위원장, 정재원 위원장				
회의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월 총회 지역 및 날짜 선정 2.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관한 내용 3. 사무국 보고 				
<p>1. 6월 총회 지역 및 날짜 선정</p> <p>(1)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월 8일 진행되었던 1차 의장단 회의에서 6월 총회 지역은 부산으로 결정되었음. - 이에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이 지역 부분의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성향 상 전국구 단체이다 보니 3월 총회가 열렸던 서울을 제외하고 교통편이 좋은 곳이 낫다 판단함. 따라서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모이기 쉬운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임.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총회를 호남권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함. 전대까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자체적인 모임 및 활동에 있어 호남권에서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음. 지난 8대와 비교해 본 결과, 현 9대에는 호남권 거주 의원들이 비교적 많음. 부산, 서울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총회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호남권은 낮았음. 전국적인 단체인 만큼 지역에 따른 편중성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봄. 따라서 문정주 위원장은 이번 6월 총회를 광주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임. 광주는 광주공항, 광주역, 종합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이 매우 우수하며 광주광역시 내의 지하철 및 시내버스 제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음. 무엇보다도 다수의 의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보다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더 짧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이동 만족도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 역시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산의 경우, 지난번 꿈페소생술 캠페인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은 광주를 제안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충청남도 공주의 경우, 부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교통편은커녕 기차로 가는 길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함. 이는 정재원 위원장의 주관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서울이나 각각 주요 도시들의 경우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편이 원활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비교적 소도시에 거주하는 의원들의 경우 교통편이 매우 불편함. 더군다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교통비 지원도 없으므로 각각의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로인해 높은 참여율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임. 따라서 정재원 위원장은 부산에서 총회를 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총회를 개최했으면 함. 의원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함. 정재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전을 추천함.
- 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지희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에게 서울과 부산의 중간지역인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서 교통편이 편한가에 대한 질문을 함. 이지희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통합위원회 경우 KTX로 이동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광주의 경우, KTX 정차역이 아니므로 대전을 추천함.
-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KTX가 정차하는 역 중 광주송정역이 있음을 알려줌.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대전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지리적으로 중간부에 위치할지는 모르겠으나 호남권에서 대전으로 가는 교통편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뿐더러, 서울로 가는 이동시간과 비슷함. 더하여 지난 8대 의원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한 결과, 참여의원 수가 육안으로 파악하여도 적었음을 알 수 있었음.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갤러리를 참조했으면 함.
- 이에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경상지역인 부산에서 출발하는 KTX의 경우 광주로 가는 광주역, 광주송정역, 서광주역 모두 정차하는 열차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구성원 중 서울에 거주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이동 역시 원활하기에 총회 장소를 대전으로 선정한다면 서울 의원들의 참여율 상승도 기대해볼만 함. 그리고 대전이 전국적으로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이 부산의 경우도 서울과 같이 그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의원들의 참여도만 높을 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오기엔 힘들다고 생각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이동시간과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함. 문정주 위원장은 지역의 편중성도 고려해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을 표명함.
-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은 이미 영남권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므로 여러 위원장들이 발언한 대전도 좋지만 비교적 캠페인이 열리는 비중이 적은 호남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전국적인 단체인 만큼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냄.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서울만을 기준으로 두고 거리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함. 서울은 수도권이기에 타 지역에 비해 교통편이 다방면으로 돼있음. 따라서 타 지역에서 총회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에 있어 편리한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부산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며, 교통

비는 고속버스의 경우 1만 5천원쯤인 것으로 확인됐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지역을 찾아가는 의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용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
-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6월 총회 지역 선정에 있어 부산, 광주, 대전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정족수 10인 중 부산 3인, 광주 3인, 대전 4인으로 6월 총회 지역은 대전으로 선정됨.

(2) 날짜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통합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말고사 일정을 조사한 결과, 7월 초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6월 첫째 주의 경우, 주말이 지난 후 화요일이 현충일이므로 연휴가 형성되기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고 생각함. 따라서 5월 마지막 주 혹은 6월 둘째 주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총회 날짜를 6월 3일로 했으면 함. 기존에 언급됐던 5월 27일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있는 날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도 부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날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 이에 신민기 부의장이 총회를 꼭 토요일에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이 일요일도 좋다고 보는 바이지만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의원들은 귀소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일요일은 힘들다고 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6월 3일의 3일 후가 현충일이기는 하나 그 영향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6월 3일을 총회 날짜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임.
-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은 총회 날짜를 6월 10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표명함. 6월 10일에 총회를 진행할 경우 5월 27일에 부스를 운영하고 2주간 휴식을 취하고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김. 따라서 정현민 위원장은 6월 10일을 총회 날짜로 제안하는 바임.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기말고사 일정이 빠르게는 6월 말, 대개는 7월 초임. 미리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배려하여 6월 10일보다 빠른 6월 3일에 진행했으면 함.
- 이에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은 6월 3일에 총회를 개최할 경우 2주 연속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이 잡힘. 이는 의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현민 위원장은 1주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뒤인 6월 10일에 총회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6월 총회 날짜 선정에 있어 5월 27일, 6월 3일, 6월 10일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정족수 10인 중 5월 27일 1인, 6월 3일 5인, 6월 10일 3인, 기권 1인으로 6월 총회 날짜는 6월 3일로 선정됨.
- 신민기 부의장이 6월 총회 날짜 선정 투표 결과에 대해 통지했음. 이에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이 신민기 부의장의 통지 내용 중 과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과반이라는 부분이 본 투표 상에서 적용된다면 장소에 관한 투표 역시 그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이의를 제기함.
-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회의 참석자 중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10인으로, 본 투표에서는 6월 3일에 5인이 투표했고, 나머지 4인이 분산되게 투표를 하였기에 자동적으로 6월 3일로 확정됐기에 투표를 종료한 것임. 장소 투표에서는 모두 고르게 3인, 3인, 4인으로 과반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마지막까지 투표를 진행한 것임.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각 투표 문항의 과반을 말한 것으로, 중대한 사항인 만큼 그 부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재투표를 요청함. 재투표에도 동일 결과가 나올 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에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이 신민기 부의장의 과반이라는 표현을 낱짜 투표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해 문정주 위원장이 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신민기 부의장이 말한 내용과 같이 장소와 낱짜 모두 최다득표수로 선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이에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이 회의 초반에 투표 결과를 최다득표수를 따를 것인지 각 항목의 과반 이상의 찬성수를 따를 것인지 언급된 바가 없음. 문정주 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떠나 회의 진행의 착오로 생각되어 재투표를 요청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이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지금은 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함.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추측이고 주관적인 발언이긴 하나, 만약 신민기 부의장이 과반이란 표현과 10인 모두 투표한 후 마감해 6월 3일이 선정됐다면 이러한 이의가 제기됐을지 의문임. 만약 회의 진행, 즉 과반 투표와 최다득표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착오가 있었으면 지역 투표 때 말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논의 진행 중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투표 결과를 최다득표수를 따를 것인지 각 항목의 과반을 따를 것인지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이의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의견이 계속되어 충돌한다면 재투표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함.
- 박기병 수석대변인은 신민기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 것은 과반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 과반이 되어 결과의 변동이 생기지 않기에 투표를 종료한 것임.
-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이미 모든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고민하여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이후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한 의원들이 적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투표 결과가 변동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므로 굳이 재투표를 하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짐. 더불어 투표 결과가 변경된다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반복하는 것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이 의견은 편향된 의견일 수 있으며, 재투표 찬반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이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재투표 실시여부에 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전체 투표에 대한 재투표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이에 정족수 10인 중 찬성 7인, 기권 3인으로 재투표 실시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함. 이에 정족수 10인 중 찬성 2인, 반대 8인으로 기각됨.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이 결정된 사안으로 의원들에게 미리 공지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박시일 의장은 사무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 의원의정보고에 공지하겠다고 함.
- 윤지희 팀장은 사무국에서 대전 소재 회의실 중 인원과 위치, 당일 대관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후에 다음 주 중으로 공지하겠다고 함.

2.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에 관한 내용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로 정기회의 안건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박시일 의장은 정기회의에 대한 안건은 주로 총회 날짜 및 장소 선정과 사무국에서 요청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임을 밝힘.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이 사무국이 요청한 사안이 안건이 된다고 했는데, 안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문함.
- 박시일 의장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주기만을 정한 뒤, 사안이 있을 경우 유동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안건 중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굳이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터이고,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필요 시 회의 날짜를 정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함. 정기적인 회의 날짜를 정한다 해도 시험기간 등 매달 상황에 따라 날짜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굳이 정기회의 주기와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의문을 표함.
- 박시일 의장은 멘토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사무국 안건, 총회 날짜 선정, 각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도 받는 자리라고 하였음을 말함.
- 윤지희 팀장은 지금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 연임한 의원이 아니라면 위원회 내 입법청원안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의장단과 위원장들끼리는 입법청원안 준비요령과 과정, 현황, 궁금한 점 등도 교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함.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이지희 팀장이 발언했던 입법청원안 작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현했으며, 정기회의를 월 1회 진행했으면 함. 단, 각 위원회별 온라인회의 날짜를 고려해 정했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재원 위원장은 금요일 11시 30분에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 날짜는 각 운영위원회의 종료 시점에 다음 회의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함. 시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회의 종료 시점에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의장단에서 후보지를 제시해 결정했으면 함. 또한 본 회의가 4월 넷째 주임을 감안하여 5월에 진행될 회의도 넷째 주 일요일을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정확한 일정은 5월에 잡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표함.
- 이에 다음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5월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기로 함.

3. 사무국 보고

(1) 자문의원 위촉 관련 진행사항

- 3월에 보고한 바와 같이 많은 의원실이 대선 일정으로 자문의원 위촉 건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고 있음. 지난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의원실과의 연락을 취했으나 대선 일정으로 많이 혼잡해 대선이 마무리돼야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 따라서 현재 확정된 자문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심재철 의원, 정치법제위원회 진선미 의원, 청소년

- 권익위원회는 정춘숙 의원으로 총 3인의 의원이 자문의원으로 응했음.
- 나머지 의원실에 대해서는 대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겠다거나, 관련 공문 전송을 한 번 더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자문의원 위촉과 관련해 의원실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3월 총회 때 이지희 팀장이 보고한 결과로는 통합위원회 박남춘 의원 역시 자문의원에 응했다했는데 변경된 것인지 오류인지 궁금함.
 - 이에 이광주 멘토는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함.
 - 신민기 부의장은 정치법제위원회에서 혹여나 자문의원 후보 3인 중 1인이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로 표창원 의원을 선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나머지 2인 중 1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표창원 의원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궁금함.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진선미 의원이 수락한 상태라고 보고 받았으니 현실적으로 추가 위촉이 불가하다면 더 이상의 위촉을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함. 하지만 위촉을 진행하는 주체가 사무국이니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3인을 맞추고 싶지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설득을 거쳐 3인 이하의 자문의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표함. 그리고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표창원 의원 외의 예비 의원도 갖춰놓았기에 원한다면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임.
 - 청소년권익위원회 문정주 위원장은 자문의원으로 1인 이상의 의원이 위촉된다면 청소년권익위원회 자문의원으로 박주민 의원과 김현미 의원도 자문의원 위촉에 넣어줬으면 함.
 - 이에 이광주 멘토는 나머지 두 의원과의 접촉도 진행하였으나 대선정국이다보니 서류가 누락되거나 검토하는 데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이광주 멘토는 위원장 전원에게 자문의원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추천한 3인 모두를 위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대선정국으로 인하여 각 위원회 당 1인의 자문의원도 위촉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최소 1인이 배정된 위원회의 경우는 놔두고 1인도 위촉되지 못한 위원회에 자문의원 위촉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밝힘. 3인을 모두 위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원회간의 균형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줬으면 함.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의장단 공약 중 자문의원 수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함.
 - 이에 박시일 의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함.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은 자문의원이 겹치게 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만약 자문의원이 수락을 한다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함.

(2) 캠페인, 위원회별 입법청원 활동

- 각 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있는 멘토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멘토의 역할을 주고자 함. 그 전에 의원들에게 멘토들에게 바라거나 이 점만 삼갔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드백 혹은 제안바람. 관련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겠음.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멘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함. 현재 멘토들의 역할은 파벌 조장 또는 사이버 폭력 등 위원회 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알고 있음.
- 이에 이광주 멘토는 현재 멘토들의 역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점점 위원회 입법청원 활동이 정착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 에 대한 자문 및 멘토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규정했음.
- 정치법제위원회 장준혁 위원장은 자문 및 멘토링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 내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지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함.
 - 이광주 멘토는 아니라고 답했으며, 입법청원안을 작성하는 데에 법률적인 자문 혹은 문맥상 검토 및 관련 배경지식 제공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 회의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임을 말함.
 - 통합위원회 이지희 위원장은 이광주 멘토가 의원들이 각 멘토들에게 바라거나, 이 점만 삼갔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드백 혹은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 후 개별 연락을 드려도 될 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으며, 이에 이광주 멘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